

## 중국 근대 번역의 두 가지 방향 - 『신청년(新靑年)』과 린수(林紓)의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김 하 나  
(고려대)

### 1. 서론

수천 년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학 역시 세계의 중심이라 인식해왔다. 그러나 아편전쟁으로 기존의 굳건했던 중법사회의 규범과 전통·신앙에 가까운 ‘중화(中華)’사상이 깨어지면서 중국에는 근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때 고인 물과 같던 중국에 새로운 사상과 문학양식을 수혈하는 방편이 바로 ‘번역’이었다. 번역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배우고 문학을 이해하며, 중국의 현대문학 이론을 정립해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근대 번역은 ‘번역’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가 된다. 사상과 정치체제 및 문학의 개혁에 번역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청년(新靑年)』과 린수(林紓)의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근대 소설번역의 변화과정을 짚어보고, 번역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김

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번역은 동한(東漢)에서 수당(隋唐)시기 불경 번역의 전성기를 통해 어휘 및 표현이 풍부해졌다(김혜림 2012: 34). 그리고 청(淸)말에 이르러 번역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면서 청나라 왕실과 서양인의 교회에서는 번역 기구를 마련하고<sup>2)</sup> 다시 또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외국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양인이 낮은 수준의 중국어로 설명하면 중국인이 “유창한 중국어로 운색하고 가공하는” ‘합역(合譯)’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김소정 2008: 260). 그래도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자국의 힘으로 개혁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체서용(中體西用)’, 즉 중국의 것을 중심으로 서구의 기술만 유입하려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당시 번역물의 대부분은 군사학습과 연관된 자연과학, 응용과학, 지리학, 사회과학 분야의 내용이었다(김소정 2008: 259-260).<sup>3)</sup>

그러다 1895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마저 무너지고 ‘번역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청 왕조가 30년이란 시간 동안 양무운동을 진행했음에도 일본에 패배하자 그들 정책에 회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900년 이후 서학(西學)의 번역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중점을 두었던 기술·제도 등의 물질문화에서 사상·학술 등의 정신문화로 눈을 돌리고, 서구의 근대 사상과 지식을 도입해 중국의 병폐를 치료하고자 애썼다. “서양의 근대적 사유개념과 패러다임의 수입을 통해 국민을 계몽시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려 한 것이다(김소정 2008: 261).<sup>4)</sup>

- 
- 1) 현대 중국의 언어학자 스유웨이(史有爲)는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90%가 불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何其莘 외 2009: 142, 김혜림 2012: 34에서 재인용).
  - 2) 총리아문의 동문관 및 경사동문관과 강남제조국의 번역관 등이 있었다(김소정 2008: 259-260).
  - 3) 1850-1899년 번역된 567권 중 응용과학이 40.6%, 자연과학이 29.8%, 역사·지리가 10%, 사회학이 8.1%를 차지했다. 그중 철학과 문학의 비중은 각각 1.8%와 0.5%로 미미했다(Tsuen-hshin Tsien 1954, 김소정 2008: 259-260에서 재인용).
  - 4) 량치차오는 『번역서에 대해 논함 論譯書』에서 “지금의 천하는 반드시 번역서로써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을 첫 번째 뜻으로 삼아야 한다”(處今日之天下, 卽必以譯書爲強國第一意)라고 주장했다.

특히 량치차오(梁啟超)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소설이 지녔던 사회 개량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소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설이 “국민의 계몽과 정치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 하에 소설을 전통문학의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끌어올린 것이다.<sup>5)</sup> 동시에 “『번역서에 관하여(論譯書)』에서 서구 문물과 사상을 배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김혜림 2012: 36). 그 덕분에 20세기 초 번역소설 역시 수량 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김소정 2008: 260-261).<sup>6)</sup> 사상 계몽과 사회 개혁에 소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량치차오는 1902년 일본에서 중국 최초의 소설잡지인 『신소설(新小說)』을 창간한다. 정치개혁(개혁)은 소설계혁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신이 실제로 작품의 번역과 창작에도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소설은 “대개가 서구를 전범으로 삼아 정치와 교육의 개혁, 여성해방과 같은 계몽주의적 전망을 담아”내는 특징을 보였다(이주노 2006: 154, 155).

대개 이러한 소설을 비롯한 문학이 신문과 잡지를 통해 생산·소통된 것도 당시 특징 중 하나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매체인 잡지와 신문이 발달하면서 소설 역시 뉴스나 학술정보처럼 새로운 매체를 갖게 된 것이다(차태근 2007a: 133). 이러한 매체 종사자는 “계몽과 구망(救亡)이라는 사명감 속에서 작업했지만” 동시에 잡지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문체를 변화시킨다. 과거 “문언문(文言文)의 엄격한 격식에서 벗어나” 구어(口語)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은 훗날 백화문(白話文)<sup>7)</sup>운동이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된다(민정기 2006: 19-20).

청말 소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린수<sup>8)</sup>를 들 수 있다. 그는 번역을 통해 국민 의식을 깨우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김소정

5) 이전까지 중국문학에서는 시(詩)가 주류를 이뤘으며, 소설은 여흥거리 정도로 인식되었다.

6) 阿英은 “晚淸시기에 1000부가 넘는 소설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3분의 2가 번역 작품이었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阿英, 『晚淸小說史』, 1-2쪽.

7) 백화문은 문언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어체와 같은 의미(김혜림 2012: 38)이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백화문이라는 용어를 살려 서술하였다.

8) 그의 작품 역시 1910년 창간된 소설전문잡지 『소설월보(小說月報)』에 다수 게재되었다. 1921년 문학연구회의 기관지가 되면서 린수의 번역소설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08: 262) 앞서 언급했던 합역의 방식으로 150여 권<sup>9)</sup>의 서양 작품을 번역했다 (이주노 2006: 156). 번역을 통해 중국에만 훌륭한 문학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중국인의 고정관념 및 민족적 우월감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다. 그의 번역서를 통해 중국인들은 비로소 서양에도 위대한 문학작품이 있음을 깨닫고 서구 소설을 수용하기 시작한다(김소정 2008: 274).<sup>10)</sup> 이에 아잉(阿英)은 자신의 저서 『만청소설사(晩淸小說史)』에서 번역가로서 린수의 공헌을 인정한다.

그는 중국 지식계층이 외국문학을 접하게 했고, 적지 않은 일류작가들을 알게 했다. 또한 외국문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본국 문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sup>11)</sup>

그러나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국과 번역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봉건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황제가 될 욕심에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경서 읽기를 강조”하는 등 “봉건 사상을 부활”시키려는 역사적 퇴보를 선택한 것이다(홍석표 2006: 29). 이에 정치혁명에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국민이 먼저 계몽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즈음 ‘국민 사상의 개혁’이라는 기치로 등장한 잡지 『신청년』<sup>12)</sup>은 당시 번역계의 대부이자 문학계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 린수에게 도전장을 제출한다. 물론 전통과 비서구의 것을 전면 타도대상으로 설정한 『신청년』에게 린수는 진정한 구세력은 아니었지만, 린수가 고문(古文)을 옹호하고 나서자 화

9) 연구자에 따라서는 181개, 혹은 200여 종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10) 만청시기 중국인들이 문학 분야에 갖는 자긍심은 대단했다. 그들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서양보다 못함을 인정했지만, 문학은 민족우월감의 근거로 삼았다.

11) “他使中國知識階級，接近了外國文學，從而認識了不少的第一流作家，使他們從外國文學裏去學習，以促進本國文學發展。” 阿英, 『晩淸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1980, 182-184쪽. (潘艷慧 2006: 140).

12) 1915년 9월 천두슈(陳獨秀)가 상하이에서 발간한 잡지이다. 1년간 『청년잡지(靑年雜誌)』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이듬해 1916년 2권부터 『신청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창간 뒤부터 1919년 5·4운동을 전후한 시기까지 진보적 잡지의 대명사로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홍석표 2006: 30). 초기 『신청년』은 주로 사상적인 면에 주목했으나 후스의 「문학개량에 관한 소견」을 계기로 문학 및 백화문에 대한 치열한 논전을 담았고, 이는 문학혁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살을 그에게 돌린 것이다. 그들은 린수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타파’라는 5·4시기 ‘분위기’에 휩쓸려 린수를 정면공격한다(潘艷慧 2006: 140-141).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들이 린수를 공격한 데는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년』 진영과 린수가 추구했던 ‘번역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을 가르치는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면 청나라 말기부터民国(民國) 초기까지 중국 소설번역의 특성 및 지향점, 그리고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번역이 중국 근대화화와 신문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현대 번역이 나아갈 길을 조명해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1) ‘린수 VS 『신청년』’에서 두 그룹이 논전을 벌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두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청년』의 문학혁명론은 “문언문 폐기·백화문 대체”라는 ‘언어형식적 혁명’과, 유가도가 등 봉건 사상문화를 비판하고 서양 근대정신을 수용하자는 ‘사상내용적 혁명’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린수 및 『신청년』의 대립지점과 절묘하게 맞물린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 ‘번역전략 상의 차이’에서 언어형식적 차이를 기준으로 문언문과 백화문의 대립을 살펴볼 것이다. 또 3) ‘번역 목적의 유사성과 차이’에서는 작품 선택 및 주제의식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린수 VS 『신청년』

5·4 운동 시기 『신청년』을 포함한 신문화세력은 린수 등 전통지식인들과의 논전 중에 승리를 거두고 중국 땅에 ‘신문학’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승리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러한 논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潘艷慧 2006: 139)

5·4 신문화운동 초기였던 1917년 1월 1일 『신청년』에 발표된 후스(胡適)의 「문학개량에 관한 소견(文學改良芻議)」과 2월 1일 발표된 천두슈의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을 발단으로 문학혁명운동은 칼날을 전통중국문학에 겨누었다. 전면적인 개혁, 심지어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새롭게 구축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들은 “오늘의 사회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實寫今日社會之情狀)” 백화(白話)문학을 “진정한 문학(真正文學)”으로 정의하고, “평이하고 서정적인 국민문학(平易的抒情的國民文學)”, “신선하고 진실한 사실문학(新鮮的立誠的寫實文學)”, “명료하고 통속적인 사회문학(明了的通俗的社會文學)”을 성취하기 위해 화려하고 과장과 걸치레만 일삼는 전통문학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蔣艷慧 2006: 138).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격렬”한 논쟁은 신문화운동진영의 일방적인 공격에 불과했다. 혁명가들이 적으로 간주한 대상—고문가들—은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적막함과 난감한 상황 속에서 『신청년』 진영은 반드시 공격 대상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설령 상대가 ‘죽은 호랑이’라 해도 말이다(蔣艷慧 2006: 138-139). 그런데 이때 린수가 『대공보(大公報)』(1917.2.1)와 『민국일보(民國日報)』(1917.2.8)에 『고문의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論古文之不宜廢)』는 문장을 발표하며 고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양에서도 라틴어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으며, 일본 역시 전통을 전부 버린 것은 아니므로 고문을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知臘丁志不可廢, 則斑馬韓柳亦有其不宜廢者)’는 주장을 펼 것이다. 사실 린수는 수백 권의 외국소설을 번역한 사람이므로 신구가 반씩 섞인, 아니 新적인 요소가 舊적인 요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고문가’의 입장에서 전면에 나섰다(蔣艷慧 2006: 139). 마치 『신청년』 진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신청년』에 대한 반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글만 보고 린수가 『신청년』 진영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1917년 린수가 글을 발표할 무렵에는 『신청년』이 그리 유명한 잡지가 아니었으며,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아도 굳이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전에 보여준 그의 행보로 볼 때, 그가 위의 기

13) 루쉰은 1918년 절친인 쉬서우창(許壽裳)에게 보낸 서신에서 『신청년』 판매량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다. 1월 4일에는 “『신청년』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니 서점들이 판매를 중단하려 한다”고 하였고, 5월 29일에는 “본 잡지의 판로가 좋지 못하다”고 한탄했다(『魯迅全集』 第1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357, 362). 1918년까지도 『신청년』의 보급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당시 린수는 문단에서

고문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문자가 먼저 망하게 생겼으니 일본인들이 비웃지 않겠는가(吾國未亡而文字已先之, 幾何不爲東人之所笑也)”라고 말한 것은 고문가로서 고문의 미래를 걱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린수는 위의 글에서 백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단지 고문을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것은 어쩌면 백화와 고문이라는 양 극단을 이어주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신청년』 진영은 회색지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潘艷慧 2006: 141).

여기에서 아이러니 한 점은 『신청년』 역시 처음부터 백화로 출간된 잡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청년』은 1915년 9월 창간부터 평이한 고문으로 글을 발표했고, 외국의 문예류 역시 고문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다가 문학혁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희곡 번역에서 먼저 백화가 등장했고, 이후 전체 글과 번역문에서 백화와 고문이 공존하는 시기가 이어진다. 그리고 1918년(4권 1호) 비로소 완전한 백화로 전환한다(王桂妹 2010: 73-75). 당시는 『신청년』이 린수를 비난할 수 있는 완전한 新 세력은 아니었던 셈이다(潘艷慧 2006: 139).

사실 린수와 『신청년』 진영은 철저한 대립의 관계는 아니었다. 양측 모두 외국의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겠다는 번역의 목적과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나름의 공통분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전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신청년』이 주도했던 신구논쟁 및 그들이 추구했던 신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915년 9월 천두슈를 중심으로 상하이에서 발간된 『신청년』은 전통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이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진행한다. 공화국에 적합한 ‘국민’의 사상과 풍속을 개화하여 정치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들은 “유교로 대표되는” 종법사회와 전제정치 및 전통문화와 사상을 공격하

---

권력자에 가까운 존재로 후스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설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고문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글은 후스의 「문학개량에 관한 소견」과 한 달의 시간차 밖에 나지 않으며(당시 상하이에서 발간된 잡지가 베이징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류반농과 쉰취안통의 자작극(본 논문 ‘번역 전략상의 차이’ 참고)과는 1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린수의 글은 『신청년』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宋聲泉 2013: 37-41).

는 한편, 서양의 문화를 소개하고 유입함으로써 신사상운동을 전개했다. 위안스카이가 시도했던 복벽(復辟)운동<sup>14</sup>과 유교의 국교지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민주’와 ‘과학’을 기치로 서양의 자유평등·개성해방·사회진화론 등을 소개한 것이다. 그 가운데 그들은 민중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중의 언어와 문학의식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시선을 ‘문학’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문언문을 반대하고 백화문을 제창하며, 구(舊)문학을 반대하고 신(新)문학을 제창하는 문학혁명”을 주장한 것이다(홍석표 2006: 30-33). 그들은 신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문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신문학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후스는 「문학개량에 관한 소견」을 통해 “과거 천여 년 동안 중국문학의 주류는 결코 고전문체의 시문이 아니라 백화문이었다”고 강조하며, 문언을 ‘죽은 언어’로 정의했다. 백화야말로 문학 진화의 성과이며 살아있는 언어라고 본 것이다. 그는 “문학혁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화문으로써 문언문을 대체하는 것이라 여겼다”(홍석표 2006: 34). 물론 이전에도 백화문을 사용하지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신문과 잡지의 보급으로 문체에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실용문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백화로 문학작품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신청년』은 끊임없이 신구논전을 벌였고, 이것은 『신청년』 진영 내부에서도 동일했다. 서로의 글을 통해 전통문학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고 신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김수연 2011a: 51).

여기에 천두슈는 「문학혁명론」을 통해 “언어형식뿐만 아니라 사상내용의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학혁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귀족문학·고전문학·산림문학’의 구문학을 타도하고 ‘국민문학·사실문학·사회문학’의 신문학을 수립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대부분의 “문학혁명에 관한 논의는 언어형식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그리고 1918년 까지 이론에만 그쳤던 백화주장은 1918년 5월 『신청년』이 전면 백화로 개편되고 루쉰(魯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가 본 잡지에 발표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홍석표 2006: 36-39).

www.kci.go.kr

14) 봉건왕조체제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공화정에서 봉건군벌인 위안스카이는 개인적 야심으로 봉건왕조체제로 복귀하고자 시도했다(홍석표 2006: 29 참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년』 진영은 전통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문학 장르별 개혁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sup>15)</sup> 또 그 일환으로 번역을 실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번역의 기능이 독자의 정신세계를 넓히고 세계 인류를 관찰하며, 인간의 도덕을 배양하고 인간 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고<sup>16)</sup> 문학의 근대화를 실현한 것이다. 그들은 외국문학 담론에 기초를 두고 문학적 기교와 표현기술을 수용함으로써(황선미 2012: 53)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 “창간호부터 투르게네프, 오스카 와일드, 체홉, 입센 등 러시아·영국·프랑스·북유럽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여” 서양 근대문학의 자극을 받게 하였다. 후스는 소설을 창작하는 방법과 기교면에서 중국이 서양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중국의 소설 창작을 제고시키고 풍부하게 하려면 서양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석표 2006: 40). 저우쥘런(周作人) 역시 중국에 모범으로 삼을만한 작품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번역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우쥘런은 “신문학이 휴머니즘을 이념으로 삼아 유교와 도교를 선전하는 ‘비인간적인 문학’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새로운 ‘이상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참된 문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속적인 백화언어와 대다수가 좋아하는 문학 장르로써 보통 사람의 진실한 생활을 묘사하고 ‘보통 세상 남녀의 희비(喜悲)와 이합(離合)’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홍석표 2006: 41). 동시에 이들은 1918년 잡지의 전면백화를 실시한 이후 문학혁명 이론에 부합하는 실제 작품을 창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년』은 끊임없이 구문학 세력을 비난하며, 전통을 부정했다. 이러한 전통에는 종법사회를 유지해온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귀족적 성격이 강한 전통문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문으로는 일반 대중을 개화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국어(國語)’와 국어를 사용한 ‘국어의 문학’, 문학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문학의 국어’를 주장했다. 바로 언어와 사상 두 방

15) 구체적으로는 후스의 「단편소설론」(제4권 제5호), 「문자진화 관념과 희곡개량」(제5권 제4호), 「나는 왜 백화시를 지으려 하는가」(제6권 제5호)와 어우양위첸(歐陽予倩)의 「나의 희곡개량관」(제5권 제4호 부록) 등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글이 기고되었다.  
16)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新青年』第4卷 第4號, 1918.4.15.

면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린수의 번역소설과 교묘하게 접합되고 또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 3. 번역 전략상의 차이

문학의 형식적 개혁에 중점을 둔 후스는 고문을 백화문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백화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의 소설을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린수는 고문을 이용해 번역했다. 자신이 직접 외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술자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유려한 고문으로 써냈다. 서양 소설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인식이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구술자의 설명에 의존해 완전히 중국화 한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린수는 “백성의 지혜를 밝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번역활동을 시작했기에 내용의 실질적인 번역에 있어서” “자국의 이념들로 굴절된 의미를 전달”했다. “중국 지식인들의 언어인 고문으로 서양소설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유가적 개념 용어들이 번역어로 채택”되었고, “서구열강들이 근대화과정에서 관철시켜왔던 서구 중심적 논리는 중국 전통의 유가개념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됐다(김소정 2008: 265).

이와 상반되게 후스는 『신청년』 4권 4호의 「건설적 문학혁명론(建設的文學革命論)」에서 번역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일류의 문학작품만을 번역할 것이며, 모든 글은 ‘백화’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고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의 장점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린수 등에 대한 질책을 표명한 것이다(蔣艷慧 2006: 143). 그러면서 그는 린수의 역서 『원실안(圓室案)』에서 탐정이 “벌컥 성을 내며 옷소매를 뿌리치고 일어서다”라고 묘사되었던 것을 예로 들며 “탐정이 옷소매가 넓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복을 입었다 보다”고 비웃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서술체인 고문으로 번역한 것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큰 모독”이라고 덧붙였다.<sup>17)</sup>

후스는 또 「단편소설론(短篇小說論)」에서 단편소설이 가장 경제적인 문학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권취(君朔)의 「협은기(俠隱記: 원작 ‘삼총사」)」를 가장 뛰어난 번역으로 꼽았다. 구소설의 백화가 아닌 일종의 독창적 백화를 사용함으로써 원서의 느낌을 가장 잘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권취의 작품이 린수보다 백배는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sup>18)</sup>

류반농(劉半農)은 「나의 문학개량관(我的文學改良觀)」에서 옌푸(嚴復)의 『영문한화(英文漢話)』가 간단한 영문법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언으로 설명해서 예스럽고 생경하다며, 10여 년간 국문을 익힌 후 영어를 익혀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sup>19)</sup> 또 같은 글에서 린수가 춘희(『巴黎茶花女遺事』로 번역됨)를 번역하면서 고문을 썼기 때문에 해석불가능한 문장이 탄생했다고 비웃었다. 린수는 ‘임신하다’라는 말을 포주(胞珠)의 주(珠)자만 사용하고 ‘낙태시키다’의 의미를 ‘하(下)’자로만 번역해 “其女珠, 其母下之”라고 옮겼다. 즉 “딸이 임신을 하자 그 어머니가 낙태시켰다”는 뜻이지만, 문장만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수연 2012b: 150).

이보다 두 달 앞선 시기 첸취안통(錢玄同)은 “어떤 사람은 『요재지이 聊齋志異』의 문체<sup>20)</sup>로 서구 소설을 번역해 동성파(桐城派)<sup>21)</sup>보다 가치가 없지만

17) “前天看見一部偵探小說《圓室案》中，寫一位偵探“勃然大怒，拂袖而起”。不知道這位偵探穿的是不是康橋大學的廣袖制服！這樣譯書，不如不譯。又如林琴南把莎士比亞的戲曲，譯成了記敘體的古文！這真是莎士比亞的大罪人，罪在《圓室案》譯者之上。

18) 我以為近年譯西洋小說當以君朔所譯譯書為第一。君朔所用白話，全非鈔襲舊小說的白話，乃是一種特別的白話，最能傳達原書的神。其價值高出林紓百倍。（『新青年』第4卷 第5號，1918.5.15.）

19) “而嚴復所撰英文漢話，雖全書取材，悉系彼邦至粗淺之文法，乃竟以文筆之古拙生澀，見稱於世。若取此書以為教材，是非使學徒先習十數年國文，即不許其研究英文，試問天下有是理乎。”（『新青年』第3卷 第3號，1917.5.1.）

20) 청나라 문언소설 방면의 대표작으로, 여기서는 고문투의 말투를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1) 청대 산문유파로 고문부흥 운동의 길을 열었다. 첸취안통은 『신청년』3권 1호의 통신(1917.3.1.)에서 그들은 “시와 사를 지을 때 반드시 상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중략…이러한 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장을 전아하고 고야하다고 자처하면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고급 팔고(八股)문일 뿐 문학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수연 2012b: 107).

‘대문호(大文豪)’로 평가 받는다”며 한탄했다. 정확하게 비난하는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린수를 비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그는 린수 번역 소설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전면 부정했다.

어떤 대문호는 『요재지이』의 문체와 합역의 방식으로 외국 소설을 번역하니 본뜻이 많이 사라진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비평까지 붙여 넣으니 그런 번역 소설은 읽지 않는 것이 낫다.<sup>22)</sup>

또한 첸쉬안통은 왕징쉬안(王敬軒)이라는 가명으로 고문가인척 『신청년』에 글을 기고하면서, 린수를 위대한 문호라고 추앙해 류반농이 반격할 빌미를 제공한다. 자작극을 통해 린수 번역 소설[林譯小說]이 문학적 가치가 없으며 작품 선정에 문제가 있고, 외국소설을 고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오역과 윤색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게 한 것이다.<sup>23)</sup> 린수는 서양 소설을 본토화해 버리기 때문에 외국의 작품을 읽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다(宋聲泉 2013: 41). 그리고 「신문학의 세 가지 주요사항에 관하여(關於新文學的三件要事)」(『신청년』 6권 5호)라는 글에서는 린수와 대비되는 모델로 저우치밍(周啓明)의 번역을 들며, 직역의 방식을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주지전달(達旨)’의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중국인의 어투를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고, 청 왕조의 거인(舉人-린수를 가리킴)처럼 외국 문인을 모두 포송령(蒲松齡)의 딱 막힌 도제(徒弟)로 만들지 않는다.<sup>24)</sup>

특히 저우취런은 번역을 신문학을 창조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번역’ 자체의 문제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번역’이라는 것이 언어의 전환이기 때문에 원

22) 但是某大文豪用《聊齋志異》文筆和別人對譯的外國小說，多失原意，並且自己攙進一種迂謬批評，這種譯本，還是不讀的好。(『新青年』第3卷 第1號「通信」，1917.3.1.)

23) 고문가 쪽에서 반응이 없자 『신청년』 진영은 이런 자작극까지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24) 周啓明君翻譯外國小說，照原文直譯，不敢稍以己變更。他既不願用那‘達旨’的辦法，借外國人學中國人說話的調子；尤不屑像那‘清室舉人’的辦法，叫外國文人都變成蒲松齡的不通徒弟，我以為他在中國近年的翻譯界中，是開新紀元的。

문의 의미가 손상되기 마련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를 분화한 이후 비롯된 인류의 숙명”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원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할 지라도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번역해야지 자신의 언어로 멋대로 원작을 윤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 같지 않은” 중국어로 번역을 구사해 이국화(異國化)를 시도했다(王桂妹 2010: 66-68). 그러면서 그는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는 어린아이가 구사하는 언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고문가들을 그것을 교훈하고 설교하는 식의 말투로 번역함으로써 안데르센의 모든 특색을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저우쥘런은 안데르센 동화가 위대한 것은 시인의 관찰력과 어린아이의 언어로 문명국의 어린이가 사회 체제에서 겪는 야만적인 일을 묘사한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고문가들은 ‘교실 내 수신(修身)의 격언’에 근거하여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말투로 둔갑시켰다. ‘불행하’도 안데르센 동화의 모든 특색이 제거된 것이다.<sup>25)</sup>

이는 원문의 느낌과 정신을 손상하는 번역을 지적한 것으로 린수의 번역도 여기 포함된다. 번역에서의 ‘의미 손실’을 우려한 것이다.

이렇듯 번역 전략을 언급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의 번역론이 이후 중국 문학계 및 번역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시도는 ‘직역’을 통한 외래어 유입으로 중국어가 풍성해지는 데 기여했다(김혜림 2012: 38). 황선미(2012: 1978-199)는 본인의 논문에서 번역이론에 입각하여 『신청년』 주요 역자들의 번역전략 및 특성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그들의 전략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원천이 되는 텍스트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목표 언어로 전달한다. 둘째, 원천 텍스트의 분위기와 문체를 가능한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번역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원천 언어의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느끼는 감동을 목표 언어의 독자들도 동일하

25) 在周作人看來，安徒生童話的偉大與可愛之處恰在於用詩人的觀察，小兒的言語，寫出原人一文明國的小兒便是系統發生上的小野蠻—的思想，卻被中國古文學家依據“教室裏的修身格言”篡改為教訓與說道的口吻，致使Andersen的一切特色，‘不幸’也都是掉了。周作人(1918)「隨感錄·二四」，『新青年』第5卷 第3號。(王桂妹 2010: 68쪽)

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번역에 대한 탐구와 실천으로 신소설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현대적 의의가 가장 강한 「광인일기」를 기점으로 백화소설이 다량 시도되었고, 구문학과는 다른 예술적 형태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서양번역소설에서 다양한 예술기법을 흡수, 모방하여 작품 속에 적절히 응용하는 노력이 있었다<sup>26)</sup>(張凱惠 2012: 1-2).

여기서 우리는 『신청년』 진영의 입장에서 린수의 번역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린수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고수하며 전달하는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음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린수가 처음 번역을 시도했을 때는 사대부가 문화의 주요 향유층으로서 문학의 권력까지 독점한 상태였다. 소설은 향간의 글이나 유흥거리로 치부되었으며, 『신청년』 진영에서 주장하는 백화는 멸시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기존의 번역 작품 또한 문체가 저속해 지식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린수는 뛰어난 고문 실력과 문학성으로 독자(당시 지식계층)와 서양소설 사이의 간격을 좁혔고 소설의 지위 격상에 기여했다(趙霞 2009: 8). 사대부들이 세운 ‘단단한 벽’을 부수고 서양의 문학작품을 수혈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린수가 처음부터 외래어 위주의 번역을 시도하거나 백화문으로 번역했다면 이들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신청년』 진영에서 린수를 비난했던 이들의 회고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후스와 저우쥘런 등은 린수가 세상을 떠난 후 린수의 번역 소설을 통해 서양의 문학을 접했고, 심지어 모방까지 해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우쥘런은 1924년 12월 1일 『어사(語絲)』 第3期에 발표했던 「린친남과 뤼전위(林琴南<sup>27)</sup>與羅振玉)」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했다.

그는 외국 문학을 소개함에 있어 비록 반고와 사마천의 고문필법을 사용했으나 그 노력과 공적은 어느 사람에 못지않다.……솔직히 말하자면 우

26) “번역을 통한 외국 문학의 적극적 수용으로 사실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등 새로운 문예사조가 유입되었다.”(김혜림 2012: 38)

27) 林琴南은 린수의 자(字)다.

리는 거의 모두 임역소설(林譯小說) 덕분에 외국에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외국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의 번역문을 모방한 적이 적지 않았다.<sup>28)</sup>

이에 대해 양련핀(楊聯芬)은 임역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를 앞서 간 데 [超前性]였으나, 숨겨진 공로는 서구문학을 숭상한 5·4 문학가들을 배출한 데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29)</sup> 린수의 번역소설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서구문학을 유입하는 데 공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번역이 장기화되고 린수가 『소설월보(小說月報)』라는 잡지에 고정적으로 번역 작품을 발표하면서 린수의 번역이 점점 더 고문화 된 점이다. 첸중수(錢鐘書)는 『임서의 번역(林紓的翻譯)』에서 애국심을 담았던 그의 번역이 신해혁명 좌절 이후 돈벌이의 한 방편으로 전락했다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후기에 번역된 작품은 피곤에 지친 늙은이가 노곤한 손으로 무더진 붓을 기계적으로 놀려 이전의 문장력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느낌이다. 그는 번역한 작품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고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다. 오로지 원 교료에만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sup>30)</sup>

린수는 서양 문학에 대한 중국 지식층의 편견을 깨고 후스, 저우쥘런, 루쉰 등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 했다. 신문과 잡지로 인해 독자층이 다양해지고, 문학혁명이 진행되면서 백화라는 언어형식상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었으나, 그는 계속 고문을 고수했고 번역의

28) 他介紹外國文學，雖然用了斑馬的古文，其努力與成績居不在任何人之下。……老實說，我們幾乎都因了林譯才知道外國有小說，引起一點對於外國文學的興味，我個人還曾經很模仿過他的譯文。(김소정 2008: 282)

29) “林譯小說文本的最大價值乃是其“超前性”，“隱性的後果就是塑造了一個崇尚西方文學的新的讀者群—五四一代新文學作家”楊聯芬(2003)『晚清至五四：中國文學現代性的發生』，北京大學出版社，111쪽。(潘艷慧 2006: 140-141)

30) 後期翻一所產生的印象是，一個困倦的老人，機械地以疲乏的手指驅使退了鋒的禿筆，要達到‘一時千言’的指標。他對所譯的作品不再欣賞，也不甚感覺興趣，除非是博取稿費的興趣。(趙霞 2009: 3-34)

방식에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신문과 잡지라는 미디어의 발달로 지식 보급이 확대되면서 독자층이 다양해졌음에도, 그의 번역은 여전히 독자들에게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였던 것이다(趙霞 2009: 34). 결국 그는 구시대적인 고문에 매여 시대에 역행하다 배척해야 할 전통이 되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4. 번역 목적의 유사성과 차이

“5·4 신문화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청년』의 문명관이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신구라는 이원적 구조에 기초해 있다.” 정치(제도)와 문화(윤리)의 비조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부터 신구 관념이 제기된 것이다(김수연 2011a: 35-36). 그들은 미래 중국에 필요한 사상과 문화는 어떤 것인가를 고심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번역 작품을 선정했다.

판옌후이(潘艷慧)는 자신의 논문에서 『신청년』의 각 호별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어떤 사조나 사상이 번역·소개된 해당 호의 비(非)번역문에서는 동일한 담론이 많이 등장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 대신 이러한 담론은 이후에 발간된 호의 여러 다른 비 번역문에 등장한다(2006: 130-131). 문학혁명에서 ‘先 번역 後 창작’을 주장했던 것처럼, 사상면에서도 먼저 서양의 사조와 사상을 번역·소개한 후 주요 담론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번역이 『신청년』이라는 잡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좌표가 된다. 또한 이들의 시도는 신문화운동에 있어 하나의 축으로서 기능한다.

앞서 언급했듯 후스는 「건설적 문학혁명론」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하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명한 저자의 저작만을 번역하고 이류 이하는 번역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서양문학을 잘 아는 학자들이 회의를 열어 번역해야 하는 일류의 문학명저들을 공식적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 약 100권의 장편소설과 500편의 단편소설, 300종의 희극, 50인의 산문을 선정해 『서양문학총서』 1부로 편찬한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번역한 후 다시 2부에 수록할 작품을 선택한다. 번역이 완성되면 몇 명의 학자가 원고를 심사하고 작품마다 서



문과 저자의 간략한 전기를 붙여 출판한다.<sup>31)</sup>

후스는 중국의 신문학을 위한 방법이 완비되지 않아 국내에서 모범을 찾기 어려우므로(從文學方法一方面看去, 中國的文學實在不夠給我們做模範) 서양 문학을 모방함으로써 창작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학 성립에 있어 번역이 훌륭한 모델 제시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신청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번역했던 저우쥘런<sup>32)</sup> 역시 번역의 중요성에 집중했다. 그의 유명한 글 「인간의 문학(人的文學)」(『신청년』 5권 6호, 1918.12.15.)은 번역에 대한 강조로 결론을 내고 있다.

우리가 창작에 임할 경우 비교적 잘 아는 중국에 편중될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외국의 저작물을 소개 번역하여, 독자의 정신을 넓히고 세계의 인류를 관찰하며 인간의 도덕을 배양하고 인간의 생활을 실현해야 한다.<sup>33)</sup>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량치차오를 중심으로 소설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공리주의’ 문학관<sup>34)</sup>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31) 只譯名家著作, 不譯第二流以下的著作。我以為國內真懂得西洋文學的學者應該開一會議, 公共選定若幹種不可不譯的第一流文學名著, 約數如一百種長篇小說, 五百篇短篇小說, 三百種戲劇, 五十家散文, 為第一部《西洋文學叢書》, 期五年譯完, 再選第二部。譯成之稿, 由這幾位學者審查, 並一一為作長序及著者略傳, 然後付印。

32) 1918년에서 1922년까지 천두슈는 1편, 후스는 4편, 루쉰 5편, 저우쥘런 33편의 번역을 남겼다. 저우쥘런의 번역물은 대다수가 소설이었다(황선미 2012: 41쪽).

33) 我們偶有創作, 自然偏於見聞較確的中國一方面, 其餘大多數都還須紹介譯述外國的著作, 擴大讀者的精神, 眼裏看見了世界的人類, 養成人的道德, 實現人的生活。

34) 량치차오는 “소설은 사람들을 다른 세계로 이끌고, 또 사람들이 품은 상상이나 경험 상태를 철저히 묘사하여 드러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설은 문학의 최상승(小說為文學之最上乘)이라고 평했다. 그것은 소설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적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이란 감정을 고양시키는 감성적 기능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지식 전파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훗날 왕귀웨이와 저우쥘런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태도를

문학론의 궁극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문학과 국민-국가라는 알레고리를 탈피하지는 못했던 것이다(차태근 2007a: 124). 이것은 『신청년』 진영의 발간의도 및 작품 선정 의도와도 일치된다. 일종의 의도성을 지닌 번역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적 가치는 무엇이였을까?

『신청년』 진영은 전통을 타파하고 언어·사상적면에서 서구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황선미 2012: 199) 그들이 꿈꾼 서구는 현실의 서구라기보다는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서구였다.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지식인들은 전쟁 후의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고, 서구의 사상이 완벽한 ‘유토피아’가 아님을 깨달았다. 서구의 정치문명이나 이념보다는 중국이 참여해서 실현해야 할 목표로서 서구의 사상이 제시되었던 것이다(김수연 2011a: 37-39).

또한 그들은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멥리(猛麗)는 자신의 논문 『『신청년』의 이데올로기와 시학이 문학번역 작품 선택에 미친 영향(『新青年』의意識形態和詩學對其文學翻譯選材的操控)』에서 『신청년』 사단의 이데올로기 경향과 문학관이 번역소재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張凱惠 2012: 3). 『신청년』이 비교적 순수한 문학적 예술성을 추구했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계몽이나 이데올로기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서양 문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 문학의 앞선 사상과 작품을 중국으로 유입해왔다. 서양문학의 현대문명 정신으로 중국문학을 변화시켜, 현대적인 중국의 신문학을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중국문학과 문화의 현대화로 중국 국민의 영혼을 개조하고 현대화’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張凱惠 2012: 5).<sup>35)</sup> 즉, 그들의 번역 역시 민지(民智) 개량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전의 전통문학은 “제왕과 귀족, 신선과 귀신, 개인의 영달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위 말하는 우주나 인생, 사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sup>36)</sup> 그러나 급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량치차오 역시 인간의 상상과 경험세계에 대한 묘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량치차오는 정치사상가적인 입장에서 시대에 개입하는 정치적 글 쓰기를 시도했다(차태근 2007: 129-130).

35) 朱德發, 『五四文學初探』, 山東人民出版社, 1982.

36) 許志英, 倪婷婷(1992) 『中國現代文學主潮五四: 人的文學』, 南京大學出版, (張凱

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는 더 이상 중국의 필요에 맞지 않았다. 소설의 주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공화제 이념에 위배되는 사상, 특히 군주제와 직결된 ‘충의’와 같은 유가철학과 정치사상”을 집중 공격했다. “공화국민의 창출”을 위한 문학을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김수연 2011: 55). 5·4 시기 문학은 인성의 자유와 독립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층민과 여성 등 타자화(他者化) 되었던 계층에게 관심이 돌아간 것이다(張凱惠 2012: 5). 저우쥘런이 번역한 「성냥팔이 소녀(賣火柴的女兒)」(6권 1호)와 폴란드 제롬스키(Stefan Zeromski)의 『유혹(誘惑)』 등은 이러한 경향의 방증이다. 전통문학에서는 조명 받지 못하거나 부속품처럼 등장했던 하층민의 삶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張凱惠 2012: 6-7).

또한 그들은 국민성의 문제에도 집중했다. 다양한 번역 작품을 통해 국민성을 계몽하고, 특히 그들의 주요 독자인 청년을 개량하려 했다.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자유·진보·진취·세계·실리·과학적인 ‘신(新)’ 청년으로 만들어 반식민, 반봉건의 사회적 상황을 벗고 독립자주 및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 한 것이다. 문학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 중 하나였다(張凱惠 2012: 5).

린수 역시 그들과 비슷한 취지로 작품을 선정했다. 이러한 의도는 린수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지를 깨우치려면 학당을 세워야 하나, 성과가 더디 나타나니 회의를 열어 연설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연설은 쉽게 거행하기 어려우니 결국 소설을 번역하는 길 뿐이다.<sup>37)</sup>

이 말은 린수의 번역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비록 우연처럼 번역계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애국주의’와 ‘계몽’이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린수는 예술적인 면에 치중하는 면도 있었지만, 신소설과 같은 입장에서 중국인의 민지를 깨우려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교화의 목적을 서문과 발문에서 명확히 밝혔다(趙霞 2009: 32).

惠 2012).

37) “欲開民智，必立學堂；學堂功緩，不如立會演說；演說又不易舉，終之唯有譯書。” 林紓，〈黑奴籲天緣跋〉，《林琴南書話》，5쪽. (袁進 2011: 175)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했던 그로서는 충과 효의 미덕을 강조(김소정 2008: 265-268)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재도 대담하게 선정하여 소개했다. 번역이라는 경로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치관은 여전히 유가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가 강조했던 무사(武士)적 기개조차도 서양의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의 것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것은 “유교적 주류전통이 아닌 비주류 전통의 한 요소였다”. 모험과 탐구를 강조하는 서구의 소설을 중국의 협객 이미지와 중복시킴으로써 무사적 기개를 강조하는 식으로 주제를 전달한 것이다(김소정 2008: 277). 또한 그는 “하층사회의 모습을 묘사하는(專爲下等社會寫照)” 서양의 문학을 배우자고도 주장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묘사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려는 취지에 이미 근접했던 것이다(袁進 2011: 179).

이런 면에서 볼 때 그의 번역은 당시 고문가의 조탁(彫琢)하고 과장된 귀족적인 문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저 보기에만 아름다운 문장을 짓거나 형식에 얽매인 전통문학의 틀을 고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번역을 통해 중국인의 시야를 넓게 했고 외국문학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다(袁進 2011: 176-178).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사상에서 진보세력이던 『신청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고,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번역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야만 한다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설월보』에 꾸준히 번역 작품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오락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sup>38)</sup>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류, 삼류의 소설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袁進 2011: 179). 여기에 혁명 좌절 후 중국에 대한 기대를 잃고, 정기적으로 번역을 ‘납품’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며 번역의 질마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9)</sup>

38) 『소설월보』는 초창기에 구문학을 고수하는 흥미위주의 잡지로서, 지식 정보 제공보다는 흥미 위주의 연정소설을 주로 게재했다(황선미 2012: 57).

39) 그는 1907년 『효녀 넝겐』의 서문에서 매일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번역했기 때문에 “오역이 적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晚淸文學叢鈔』卷三에서 인용. (김소정

또한 린수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등 대대적인 윤색과 의역으로 멋대로 원작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국화했다(劉麗麗·宋鳳茹 2013: 332). “예를 들면 찰스 디킨스의 *The Old Curiosity Shop*(골동품상점)을 『효녀 넬 전(孝女耐兒傳)』으로, 미국의 볼드윈(James Mark Baldwin)의 *Dr. Johnson and His Father*(존슨박사와 그의 아버지)를 『효자의 참회(孝子悔過)』로 제목을 바꾸었다”(김소정 2008: 266-267). 자신의 의도에 맞춰 제목부터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처녀작이자 최대 흥행작인 『춘희(巴黎茶花女遺事)』<sup>40)</sup>를 번역하면서 “여자 주인공인 고급 창녀 마르그리트의 애정을 중국 고대의 충신인 용봉(龍逢)과 비간(比幹)의 충과 동일하게 취급”하고<sup>41)</sup> 또 “서양소설에서 그것에 위배되는 점이 출현할 경우 그것을 왜곡, 변용”하기도 했다. 『툼아저씨의 오두막집(黑奴籲天錄)』에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춘희』에서 기독교적 의식을 상세히 묘사한 부분을 삭제한 것(김소정 2008: 265-266, 268)만 봐도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이것을 만청(晩淸) 민국초기 번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번역가들이 창작과 번역 사이를 유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도 있다(袁進 2011: 172). 이후 중국의 번역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번역은 “독자가 번역물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독성이 좋았”으나, 이는 “외국인의 구술 번역을 윤색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했다”(김혜림 2012: 35). 원작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主義[이념이나 주장]’가 더욱 중요했던 시대였기에 자신의 주장에 맞춰 제멋대로 윤색을 가하는 등 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작을 그대로 옮기지 못한 린수 번역의 한계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신청년』 진영의 번역자들은 외국어에 정통한 유학파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했다. 문예사조 및 작가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되어 『신청년』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 작품을 선정하고 신문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신청년』 역시 무의식적으로 작품을 선별했지만, 신문학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그들은 공교(孔敎)로 대표되는 전통사상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고(김수연 2012b: 15), 여성이나 사회적 약

2008: 268)

40) 독자의 편의를 고려 한국에 번역되었던 제목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41)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절과 신하의 충(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자 계층에 시선을 돌렸다. 저우쥬런의 「인간의 문학」(5권 6호 1918.12.15.)에는 그러한 견해가 매우 잘 드러난다(김수연 2012b: 64쪽).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문학작품을 선정해 개성의 해방이라는 5·4 정신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사실 린수와 『신청년』의 번역은 모두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선택했다는 동질성을 갖는다. 후기 린수의 번역 작품이 오락성에 눈을 돌린 면도 없지 않지만, 초기 그의 번역은 중국인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무(尙武)정신이나 애국심, 개성해방 등을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김소정 2008: 270-281). 또 『신청년』은 문학의 순수한 기능을 중시하는 면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의 각성’이라는 담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문학혁명 역시 ‘순문학’ 운동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사상운동을 지향했던 것이다(황선미 2012: 41). 이렇게 볼 때 린수와 『신청년』은 작품의 선정에 있어 나름의 동질성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전략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지만 ‘계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으며, 또한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독자의 필요와 취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번역가의 운명’을 보여주는 산 ‘증인’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을 통해 만청시기부터 신문화운동 시기 번역계의 변화와 주요 담론을 이해하는 동시에, 번역가의 시대적 사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린수는 중국에 서양문학이 소개되지 않은 시기 10여 개 국 150여 편의 소설을 번역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청년』의 번역과 비교하면 린수의 번역 작품은 모두 고문이었고, 의역과 윤색 등 원작을 변용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신청년』은 외국어에 정통한 다양한 집필진을 확보한 덕분에 일본, 러시아, 영국뿐 아니라 인도, 폴란드 등 압제 속에 놓인 약소민족의 문학 작품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문학의 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외국어 능통자가 백화를 사용해 직역위주로 원문의 느낌을 살려 번역함으로써(劉麗麗·宋鳳茹 2013: 332) 번역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신문학에 ‘훌륭한 모범’을 제시했다. 결국 전략적으로 린수와 선을 그음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린수를 비판함으로써 번역 개념을 확립한 것이다(王桂妹 2010: 64-65). 그러나 그들은 린수의 역서를 통해 서구문학을 처음 접했으며, 그의 작품을 모방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면서 신문학의 ‘새로운 길’을 닦았다.

즉, 린수와 『신청년』의 대립은 단순한 신구논쟁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진화’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후스가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번역 역시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번역’이 존재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자층이 변화하고, 독자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번역에 대한 요구도 달라짐을 몸소 보여주었다.

처음 문호를 개방했을 때는 독자 대다수가 중국의 전통 지식인이었기에 린수의 고문투 번역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서양문학을 무시했던 지식인들에게 서양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신문과 잡지가 보급되자 그의 번역은 점점 독자들에게 외면당한다. 학문과 문학은 더 이상 사대부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시기, 고문으로 된 텍스트는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반면 『신청년』 진영은 민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의 기저에는 언어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주장했던 백화문을 통해 중국의 국어가 변화하고 문학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번역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문학의 이론을 정립하고 새로운 문학형태를 수립하는 데 번역이 그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린수는 설 자리를 잃어갔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아니 그 흐름을 선봉에서 주도하고 창조해 간 『신청년』의 번역은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신청년』의 성과는 린수의 번역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신청년』은 린수의 성과를 발판으로 도움닫기를 시도해 ‘번역’의 ‘세대교체’를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나긴 세대교체 과정은 번역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마침내 신문학이라는 놀라운 ‘결실’을 탄생시켰다. 이들의 오랜 경험과 노력이 쌓여 오늘의 문학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학의 탄생 뒤에 밀거름이 되었던 그들의 노고와 ‘번역’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다시 시대에 맞는 ‘도움닫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소정 (2008) 「번역을 통해 본 근대중국: 林紓의 서양소설번역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52輯.
- 김수연 (2011) 「『신청년』의 신구논쟁과 신문학론」, 『중국현대문학』 제57호.
- 김혜림 (2012)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제13권 4호.
- 민정기 (2006) 「근대 전환기의 중국문학」,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 이주노 (2006) 「문예와 정치의 변주곡, 현대소설」,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 차태근 (2007) 「20세기 초 중국 ‘문학주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제13집.
- \_\_\_\_\_ (2011) 「『東方雜誌』의 담론정치와 신해혁명」, 『中國現代文學』 第59號.
- 천두슈, 후스 지음, 김수연 편역 (2012) 『신청년의 신문학론』, 한길사.
- 홍석표 (2006) 「5·4 문학혁명과 신문학의 탄생」,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 황선미 (2012) 『신문화운동기의 『신청년(新青年)』 번역 작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雜誌 『新青年』
- 王桂妹 (2010) 『文學與啓蒙: 『新青年』與新文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蔣艷慧 (2006) 『『新青年』翻譯與現代中國知識分子的身分認同』, 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劉麗麗, 宋鳳茹 (2013) 「簡談『新青年』翻譯文學的特點」, 『青年與社會』 538卷 10號.
- 宋聲泉 (2013) 「林紓與『新青年』同人結怨考辨」, 『漢語語文學研究』 2013年 3期.
- 張凱惠 (2012) 『論『新青年』翻譯小說與“五四”小說』,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趙霞 (2009) 『論『小說月報』前期(1910-1920)翻譯小說的特點』 山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袁進 (2011) 「試論晚清翻譯小說與林紓的貢獻」, 『明清小說研究』 2011年 第1期 第99期.



[Abstract]

## The Two Ways of Literary Translation in 20<sup>th</sup> Century China

Kim, Ha-Na  
(Korea University)

After the Opium War, the Qing Dynasty that had no choice but to open the door to the Western Powers became to make an effort to strengthen national power by adopting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set up an organization that translate western publications. But they had most of interest in practical fields so that translating literature actually took a back seat.

Nevertheless Lin Shu made an effort to translate Western novels into splendid Chinese and impressed people who had disparaged western literatures. As a result his translation contributed to making Chinese intellectuals to adopt the western culture and accept its literatures.

In 1915, the group of 『Xin Qingnian, New Youth』 who advocate new literary movement under the banner of enlightenment of the youth attacked Lin Shu who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old literature and set up a new literary theory. They introduced new trend of western literature and enlightened the public through new translation. Their efforts actually helped Chinese literature to take a new direction into the modern literature.

However, we need to pay another attention to Lin Shu behind the 『Xin Qingnian』. Though his translation had backwardness, it is true that he is a pioneer of chinese literary translation and prepared takeoff for Chinese modern literature. So we should take his way of translation seriously as a part of Chinese translation history.

▶ Key Words: New Youth, *Xin Qingnian*, Lin Shu, translation, The new literature

김하나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hahahn@daum.net](mailto:hahahn@daum.net)

관심분야: 미디어번역, 문학번역, 중국 현대 문학, 중국 현대 미디어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